



복음, 민족, 땅끝

25주년을 맞는 미국 코스타 시카고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오신 많은 분들과 한국과 뉴질랜드, 호주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흰 캠퍼스를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스타가 시작되었던 1980년대의 유학생들에게 ‘복음, 민족, 땅끝 (삶과 신앙의 통합)’은 소망이었고, 소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진정으로 한국 민족에게 소망이며, 그 소망을 세상에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 민족, 땅끝’이라는 가치는 지난 25년간 코스타 운동을 이끌었던 핵심가치였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이 가치들은 여전히 우리가 고민할 문제일까요? 올해 미국 코스타를 통해 ‘복음, 민족, 땅끝’의 주제가 이 시대에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올해 코스타 집회의 daily theme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요일 : 초대

지난 25년간 코스타의 핵심가치였던 ‘복음, 민족, 땅끝’이 어떤 의미였으며,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화요일 : 복음

25년 전 복음은 우리 선배들에게 소망이었고, ‘민족’과 ‘땅끝’의 기초가 되는 가치였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각자에게 또한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봅니다. 저녁시간에는 특히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강하게 선포되면서 복음의 진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영광스런 초창의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일: 민족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으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민족중심주의나 국가주의와 같은 패쇄성을 넘어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목요일: 땅끝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를 넘도록 요청합니다.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종교의 영역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땅끝”의 의미를 고찰합니다. 저녁시간에는 이 “땅끝”으로의 초대(선교와 헌신의 초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금요일: 파송

우리(개인과 민족 공동체)에게 주어진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확인하며, 코스타 여러분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할 것입니다.

미국 코스타 2010, 25주년

코스타는 주님께서 친히 25년 동안 함께하신, 그분의 역사로 가득 찬 무브먼트입니다.

1980년대 MIT대학에서 한국 유학생으로 구성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과 워싱턴 제일침례교회, 노스캐롤라이나 더햄의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처음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이 주는 감동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그냥 한 번 모이는 모임이라

여겼는데, 그 열기가 계속 모여야 한다는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은 가고자 하는 지역에 초를 쫓으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백여 명 가운데 몇 사람이 초를 쫓았습니다. 그 다음 나가지는 않더라도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할 사람들은 초를 그 지역 위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지도가 촛불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중 초를 쫓지 않고 망설이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지금 블라디보스톡 극동대학의 교수로 있는 조상국 선교사입니다. 지도 위에 초를 쫓지는 않았어도 그 때 주신 복음의 감동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축복이 되어서 지금은 주님의 귀한 종으로 그 말은 바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타는 복음의 전염성을 타고 유럽과 일본, 또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등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코스타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두들 아무런 대가나 보수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으로 모였습니다. 먼저 강사들이 술선수범하여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2백여 명으로 시작된 모임이 25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연 2만여 명이 모이는 모임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무신의 시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은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와 진리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쾌락을 중시하는 감각주의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난 25년간 주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묵묵히 수발든 무수한 헌신의 손길들이 있어왔습니다. 특별히 미주 지역 간사들의 그 노고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믿으며 각자의 휴가를 드려 헌신했습니다. 이들이 뿌린 씨앗이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는 것까지 찾아내시고, 사람이 각자 한 일을 잊어버릴지라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께서 인정하사 그 날에 큰 상으로 그 인생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의 젊은이들이 코스타가 열릴 때마다 꾸준히 모여들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코스타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란 만큼, 또 우리의 역량과 주신 분복만큼 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달려온 25년, 사반세기동안 주께서 기적처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 Patrick Johnstone은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 남을 만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것은 새벽기도와 코스타 운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코스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오직 복음만을 강조하는 모임입니다. 세상이 ‘젊은이는 진리에 관심이 없다, 진리는 멀리받는다’ 라고 해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외면당한다 해도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감옥의 죄수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그러면 복음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는가?’ 입니다. 이것이 25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타 25주년을 맞아 우리의 깊은 신앙고백이 모여질 때에 또 한 번의 감동과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홍정길 드림

KOSTA/USA 2010 연차수양회를 기대하며

미국에서의 유학생 생활을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작년이 되어서야 코스웍을 마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이 아니라, 오래 공부해서 장학생인 셈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학생처럼 좋은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랜 시간동안 갖혀있는 듯한 삶을 살아온 나로서는 이젠 탈출구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청년/학생으로, 혹은 그들을 섬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이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답답함이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마땅한 배우자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고민보다 더 심각한 고민이 있을까. 이미 바닥을 친 통장의 잔고로 인해 시름에 놓인 친구도 있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놓인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후배와 제자들의 절절한 눈물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고 청년/학생의 때를 지나 장년이 된다면 그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손에 잡힐 듯한 삶의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어려움들이라고 해도 이런 종류의 고난도 무시할 수 있을만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해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자기 앞가림을 하기에 급급한 마당에 복음과 민족과 나라는 어디있으며, 땅의 끝은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986년 여름, 고물차를 끌고 또 아이들을 들쳐업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있었다. 폐차장을 연상케 하는 주차장에 세워진 참석자들의 고물차들은 당시 아무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조국의 암울한 미래를 대변하고 있는 듯 했다. 그렇게 첫번째 코스타 수양회에 참석했던 코스탄들 역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던 유학생으로 고뇌를 고스란히 안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일 수 밖에 없었고, 눈물을 뿌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

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선배들이 처해있던 시대적인 문제 속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과 현실에 짓눌렸던 총제적인 어려움은 어찌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 감사하며, 눈물로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의탁함으로 마침내 그들의 땅끝을 발견할 수 있었다.

25년 전 코스탄들의 어려움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 사이에는 큰 괴리감이 있는 듯 하다. 그 동안 강산이 두번이 넘게 바뀌면서 시대도 달라졌고, 사상과 가치체제 그리고 세대의 폭도 달라졌으니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25년 동안 KOSTA/USA를 통하여 미국 내 한인 학생/청년들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는 삶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눈으로 마주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로 민족과 세대를 끌어 안을 소명과 소망을 알게 하셨다. 또한 편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것이 아닌, 삶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땅끝을 향한 도전을 부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KOSTA/USA를 통해 수많은 헌신자, 그리고 일상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현해가는 숨겨진 보석같은 코스탄들이 있다. 이제 25년을 맞이하는 2010년 KOSTA/USA 연차수양회를 통해 코스타 운동을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땅에 세워갈 한인 청년/학생 디아스포라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복음의 축제와 부르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KOSTA/USA

총무간사 김동민



사랑의 손길을 찾습니다

통곡의 방에서 아이들을 봐주실 영아부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특히 저녁 집회 시간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스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



이동원 목사
코스타
국제부이사장



노창수 목사
미국 코스타
2010 조직위원장

복음은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었습니다.
민족은 우리의 외면할 수 없는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땅끝은 우리가 순종으로 가야할 소명의 지평선이었습니다.
25년 후 복음은 여전히 변할 수 없는 우리의 해답입니다.
25년 후 민족은 여전히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어머니입니다.
25년 후 땅끝은 활짝 열린 우리의 일터요 우리의 비전의 지평선입니다.

이제 우리는 훌쩍 커버린 청년 코스타인으로 25 돌 잔치를 맞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주실 25년의 꿈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깝고 먼 곳, 미국의 동부와 중부와 서부, 그리고 국내외에서 잘 오셨습니다.
25년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었던 세상을 향해 우리가 드린 기도가 어떻게 응답 되었고 또 어떻게 응답 될 것인가를 다시 꿈꾸는 시간 우리 일생 다시 없을 축제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한 해답을 모색하는 전기이기를 희망하십시오.

코스타는 복음을 전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속주의와 다원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는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코스타는 우리 조국을 가슴에 품는 컨퍼런스입니다. 우리는 분단의 땅 조국의 통일 시대를 이끌어 나갈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복음의 웨이브(wave)로 뒤덮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조국이 이 복음의 변방에서 복음의 중심지가 되는 일에 계속 헌신할 것입니다.

또한 코스타는 민족주의(ethnocentrism)를 뛰어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는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땅 끝까지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이 운동은 계속 될 것입니다.

2010년 코스타의 주제는 “복음, 조국, 그리고 땅 끝”입니다. 이것은 25년이란 세월이 흘러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야 할 비전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며 또한 사명입니다. 이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헌신하는 코스타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스타 강사가 추천하는 도서

이번 코스타에서는 세 분의 강사님이 코스타인이 꼭 읽기를 원하는 책을 소개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하지 못한 책을 코스타 보이스에서 소개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추천 강사이신 이재천 목사님의 추천도서를 소개합니다.

송인규,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을 연구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적 통찰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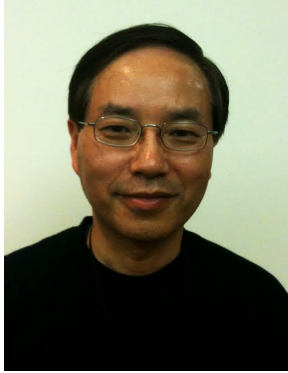
폴라이트, 「손에 잡히는 성경지도」
Holman 사에서 만든 성경지도의 축약판으로 손안에 들어오면서도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진 입체적 성경지도입니다.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문학적 접근을 통해 역사서를 개관한 통찰력있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에스더까지 각 책마다 문학적 구조와 역사적 맥락과 신학적 맥락을 제시하고 그것이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가이드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즈음 대두되고 있는 종말예언과 이단사설들이 모두 계시록에 근거한 것인데, 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읽어야 할 책입니다.

김세윤,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약을 어떠한 관점에서 읽어야 할지를 신학적이면서도 알기쉽게 풀어준 통찰력이 묻어나는 책입니다.

[미국 코스타 최다 참가자(24회 참가)인 김태평 목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김태평 목사
KOSTA/ USA공동대표

1. 코스탄들에게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미국 코스타를 처음 알게 된 때부터 지금까지 코스타가 좋아서, 코스타에 오는 식구들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김태평 목사입니다.

2. 코스타와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음에 코스타에 오시게 되었나요?

1982년에 유학을 나와서 성경공부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1984년부터 모임의 다른 분들과 함께 워싱턴 지역을 미국의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86년에 워싱턴지역에 젊은이들을 위한 수양회가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 이것이 저희 기도의 응답일지 모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클리블랜드에서 여덟 분과 함께 코스타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렇게 집회에 참석하며 코스타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코스타에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3. 그럼 1회 때부터 계속 참석하신 건가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번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계속 코스타에 참석하시려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우여곡절은 없었나요?

아버님께서 위독하셔서, 한국에 나가야 했던 해에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코스타가 열리는 주에 회사의 프로젝트 마감이었었는데, 그 때문에 회사에서 누구도 휴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직장 상사에게 휴가를 요청하였다가 거절을 당한 저는 회사의 사장님께까지 휴가를 요청했다가 결국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일 후에 기도하며,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와 집회 참석이 둘 다 중요하고, 집회 참석이 회사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희생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에도 회사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휴가를 받지 못한 채 해고를 각오하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가 집회에 참여하기로 한 후 저 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팀 모두가 열심히 힘을 모아 일했고, 그 결과 프로젝트를 미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결과가 좋았던 것 물론입니다. 그 이후에 회사에서 제가 코스타에 참석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 코스타의 지난 25년을 거의 다 지켜보셨는데요, 그동안 코스타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처음에 180여 명, 그리고 230여 명이 참석하던 코스타가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타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품었고, 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강사들이 밤새 모여서 집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다음 날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추구하기에 코스타의 규모와 조직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멘토링과 상담 시스템도 생긴 것 같습니다.

6. 25주년이 된 코스타에 제안하시고 싶은 점이 있나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 굳이 제안하자면, 복음이 더욱 강조되었으면 합니다. 초반 미국 코스타의 예를 들자면, 집회 참석자의 삼분의 일정도가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삶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번째로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 조장, 조원들이 함께 갈 수 있고, 지역 교회가 서로 더욱 좋은 방향으로 동역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교회에서는 청년을 코스타 집회로 보내고, 청년들도 돌아가서 지역교회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서 교회의 덕을 이루며 아름답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7. 앞으로 25년을 바라보시며, 코스타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경영을 공부했는데, 인간에게 수명이 있는 것처럼, 조직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보통 20년에서 25년을 조직의 수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100년을 가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에 특이한 점은, 조직 가운데 지속적인 변혁과 진취가 있지만, 기본적인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스타가 25년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길을 주의 깊게 따라갔으면 합니다. 코스타의 기본 가치인 복음과 학문을 가지고, 코스탄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코스타에 주신 고유한 것들을 유지해 나갔으면 합니다.

한가지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1회부터 3회 정도까지 코스탄들의 뜨거운 고민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제가 신학교에 가야 합니까?” 였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이외의 길에 대한 말씀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코스타는 은혜를 받은 분들에게 캠퍼스가 mission field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고민하던 많은 학생에게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포스트모던, IT 시대의 코스탄들에게 갈 길을 어떤 식으로 제시해야 할 가를 코스타가 고민하고 제시했으면 합니다.

[김성원 기사가 본 코스타]



여기는 미주 코스타(KOSTA) 수양회가 열리는 휘튼칼리지입니다. 30℃에 육박할 정도로 햇볕은 따갑지만 바람은 상쾌합니다. 마치 한국의 초가을 날씨 같습니다. 휘튼칼리지는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이 나온 학교로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한 명문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곳에서 7월 5일부터 9일까지 ‘복음 민족 땅 끝’이라는 주제로 2010 미주 코스타 수양회가 열립니다. 물론 이곳 외에도 12개국 15개 도시에서 2010 코스타 수양회가 열렸거나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주 코스타 수양회는 1986년 코스타가 시작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워싱턴DC에서 1시간 30분 거리인 서밋레이크. 25년 전 여름, 이곳에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한국 유학생 186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몰고온 고물차 때문에 주차장은 마치 폐차장을 방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 텐데 이들은 왜 고물차를 끌고 애기까지 둘러업고 이곳에 왔던 걸까요? 물론 본인의 암울한 처지를 복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암담했던 조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기독교 청년들의 안타까움, 사명감 같은 게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해마다 코스타 수양회 주제 속에 민족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도 그런 배경이겠죠.

유학생 신분이 암울하기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다 되도록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노력은 눈물겹기만 합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난 지 오래고, 결혼은 하고 싶지만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배우자를 만나기 어렵고, 물질적·신체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하고 애만 태우는 이들….

이들이 서부 LA에서, 남부 휴스턴에서, 동부 뉴욕에서 그야말로 미국 전역에서 코스타 수양회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자신 앞가름 하기도 급급한 마당에 민족과 땅끝이라니요? 복음 앞에, 민족 앞에 자신의 처지는 아랑곳 않는 코스탄(코스타 출신)들, 정말 대책없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4박5일의 코스타 집회가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코스탄들은 수양회 후 학교에 돌아가는 후배들을 모아다가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모임은 이름도, 풀타임 지도자도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 다니면서 1주일에 한번씩 와서 성경공부를 인도합니다. 코스타를 거쳐간 이들은 코스타가 좋아서 직장 휴가를 내고 오는 이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과연 코스타가 무엇이길래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앞으로 5일 동안 펼쳐질 미주 코스타 수양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코스타수양회에서는 코스타 창립의 산파 역할을 한 이동원·홍정길 목사님이 주강사로 참여하십니다. 두 분도 학생들과 똑같이 5일 내내 휘튼칼리지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코스타 25년의 감격과 이후 과제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이밖에 50여개의 주옥같은 선택강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김성원 기자 올림.
kerneli@kmib.co.kr

이 기사는 미션라이프(missionlife.c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osta In Kosta



주제문 낭독과 코스타, 조장사역 소개에 이어 두 번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첫번째 말씀을 전한 장평훈 멘토는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개인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을 받은 개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에 공동체적입니다” 라고 말씀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은 그 공동체가 순결하고, 거룩한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JJ 코스타

지난 4일 주일 오후부터 오늘 오후까지 조장 수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미국 전역 및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에서 참가하는 121명의 조장은 편의상 1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컨퍼런스 전 한 달 여부터 온라인으로 교제를 나누었고, 지난 2주간 올해 주제를 중심으로 묵상훈련을 받았습니다. 조장수양회는 온라인 훈련을 함께 마무리하며,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조장들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 조원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집회 전에 1박 2일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명의 코디를 포함한 132명의 조장과 19명의 멘토가 참여하였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채종욱 멘토의 말씀으로 조장수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개회설교에서 채종욱 멘토는 구원과 구원의 받은 사람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존재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실 정도로 값어치가 큰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대해 기뻐하는가” 라고 질문하며,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미 선포된 구원의 큰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 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장들에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선포된 구원의 영광을 본 자로서 그 기쁨과 영광을 조원들에게 드러내기를 부탁하였습니다.

두번째 말씀을 전한 김도현 교수는 ‘땅끝’의 의미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전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창조물이 있는 모든 곳(‘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주인 되심과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떻게 선교적이 되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결단해야 한다” 고 말씀하였습니다.

월요일에 계속된 조장수양회 이튿날은 QT 나눔 및 조별활동 인도를 돕는 ‘조장의 맥을 잡아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진 세번째 말씀에서 황치성 멘토는 “한 민족은 고난의 역사와 흠여짐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배워왔다” 며 “이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고 말씀하였습니다. 점심 후 이어진 breakout session은 “왕초보 조장의 코스타 길라잡이”, “함께 걷는 구원의 길”, “기혼조 운영의 원리와 실제”, “그날 이후: JJ after KOSTA” 의 4개 세션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경청했으며,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각지에서 참석하신 많은 동료 조장들과 처음 만났음에도 친숙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조장들은 조원들을 만날 설레임을 안고, 조원들을 더욱 잘 돕고 섬기고자 다짐하며 1박 2일간의 수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타 광고]

알려드립니다 !!!

1. 중보기도실 안내

- 조별 기도실은 Edman Chapel (본당) 뒤쪽 rehearsal room으로 24시간 내내 열려 있습니다. 조별 기도를 하실 때에는 Edman Chapel 로비에서 조장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기도실은 식당 지하 Gold Star Chapel로 오전 7시부터 열게 됩니다. 자정 전에 Chapel로 들어가셔서, 자정 이후에도 기도하실 수 있지만, 자정 이후가 되면, 나가시면 문이 잠기므로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정 이후에 절대로 문을 prop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매일 오전 6-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하실 분들을 환영합니다.

2. Off-campus 숙박 셔틀 버스 안내

오전운행 (화 - 금)

Hyatt Lisle (출발)	Wheaton (도착)
호텔 정문	SRC앞 버스 정류장
6:00 a.m.	6:20 a.m.
6:40 a.m.	7:00 a.m.
6:50 a.m.	7:10 a.m.
7:00 a.m.	7:20 a.m.
7:10 a.m.	7:30 a.m.
7:20 a.m.	7:40 a.m.

오후운행 (월 - 목)

Wheaton (출발)	Hyatt Lisle (도착) / Hyatt Lisle (출발)	Wheaton (도착)
1:30 p.m.	1:50 p.m. / 2:00 p.m.	2:20 p.m.
2:30 p.m.	2:50 p.m. / 3:00 p.m.	3:20 p.m.
3:30 p.m.	3:50 p.m. / 4:00 p.m.	4:20 p.m.
4:30 p.m.	4:50 p.m. / 5:00 p.m.	5:20 p.m.
5:30 p.m.	5:50 p.m. / 6:00 p.m.	6:20 p.m.
6:30 p.m.	6:50 p.m. / 7:00 p.m.	7:20 p.m.

* Hyatt Lisle

1400 Corporetum Drive, Lisle, IL 60532 (Tel: 630 852 1234)

* Wheaton -->호텔 오후셔틀은 SRC (Sports Recreation Center) 앞 버스정류장에서 타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4회 운행(1:30, 2:30, 3:30, 4:30 워튼출발)

* 저녁 집회 후 야간운행

장소: Edman Chapel 뒷편 주차장에서 출발

시간: 9시 20분 버스 5대 동시출발

* Youth program (12-18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저녁집회 이후에 자녀를 픽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1시에 프로그램을 마친 후 자녀들이 방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3. 상담실 안내

상담 신청을 오늘 오후 5 - 7시에 Alumni Gym 2층 Chicago Room에서 받습니다. 오늘 받는 상담 신청은 두 가지로서, 일반 상담 신청과 화요일 심야에 있을 그룹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상담 주제는 진로 혹은 이성교제/배우자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반상담 신청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받습니다. 단 오전 및 저녁 전체집회 시간은 제외됩니다.

4. 오늘밤 조별모임 장소 안내

조	모임장소	조	모임장소
M3	Fisher 139 옆 Lounge	M4	Lounge 4 *
M5	Fisher 474	M6	Lounge 5 *
M8	Fisher 480	M9	Fisher 580
M10	Fisher 380	M13	Lounge 2 *
M15	Fisher 394	M17	Fisher 374
M19	Lounge 3 *	M20	Fisher 484
M21	Fisher 384	M27	Fisher 594
M52	Fisher 574	M53	Fisher 490
M54	Fisher 584	M55	Fisher 590
P1	Fisher 494	P3	Fisher 390
P4	Lounge 1 *		

* Fisher front desk 앞

2010 코스타 TIP

1. 아직 등록 확인을 못하셨나요?

Alumni Gym에 위치한 등록처를 찾아 주세요.

2. 본부로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 등록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Alumni Gym으로 문의하시고, 화요일 아침부터는 Edman Chapel 로비 오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응급 환자가 있거나 비상약이 필요하실 때, 물건을 잃어버리셨을 때, 1회용 식권을 구입하고 싶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본부를 찾아주세요.

3. 전체집회 시작하고 나면 문이 닫힌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전체집회를 여는 영상이 시작되면 1층으로 입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단 집회 중간에 한번은 자리를 옮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4. 오늘 집회 끝나고 조모임은 어디서 하나요?

M 및 P로 시작하는 조는 광고의 테이블을 참조해 주십시오. 테이블에 기록되지 않은 조는 첫번째 조모임을 등록 용지에 적힌 조장님 방에서 하시기 됩니다.

5. 자원봉사자 신청을 했는데 어디서 안내를 받나요?

팀별로 이미 안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원봉사 신청을 하셨지만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은 자원봉사 데스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6. 세미나 등록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등록 마감되지 않은 세미나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7- 8시에 Alumni Gym앞에서 세미나 티켓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7. 세미나 장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일 아침 발행되는 코스타 보이스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세미나 강의실 안내를 포함하여 집회 기간동안 필요한 중요한 광고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전 집회 전에 Edman Chapel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8.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에 식사를 하나요?

내일부터 점심과 저녁에 2부제 식사를 실시합니다. 빨간색의 meal card를 가지신 분들이 처음 1시간 동안 식사하시구요. 파란색 meal card를 가지신 분들은 조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다가 1시간 후에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코스타 보이스에 우리 조 이야기를 투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일 저녁 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Edman Chapel 뒷편에 위치한 코스타 보이스 데스크에 기사를 제출해 주세요. 기사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단 투고하신 기사는 코스타 보이스에서 편집할 수 있고 코스타에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